

“이심전심(以心傳心)의 경영철학”



지난번 한국을 방문한 빌게이츠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 주최로 열린 ‘코리아 이노베이션 데이’에서 다음과 같은 전망을 내비쳤다. “10년 후엔 교육기관에서는 종이와 펜은 사라지고 대신 태블릿PC를 사용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미래를 점쳤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IT분야의 새로운 혁명의 불씨가 일었음을 간파한 내용이라 하겠다. 지난 10년이 초고속 인터넷과 PC보급의 시대라면, 향후 10년은 제2의 디지털 시대로 어떤 장치를 사용하느냐가 아닌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 새로운 미래를 짚어주는 새로운 혁명. 그 혁명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한 기업에서 그 비람을 일으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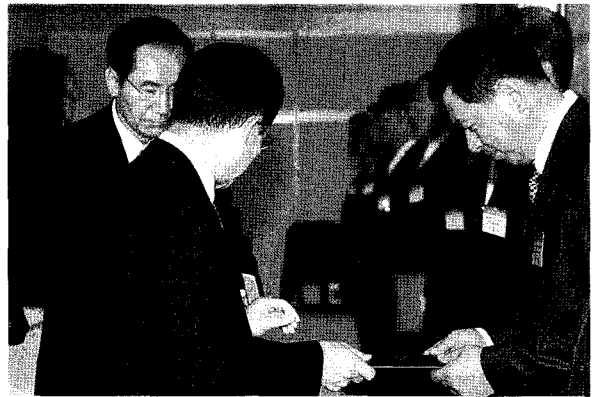
구기도 대표이사

* 제3물결의 종착지를 향해 달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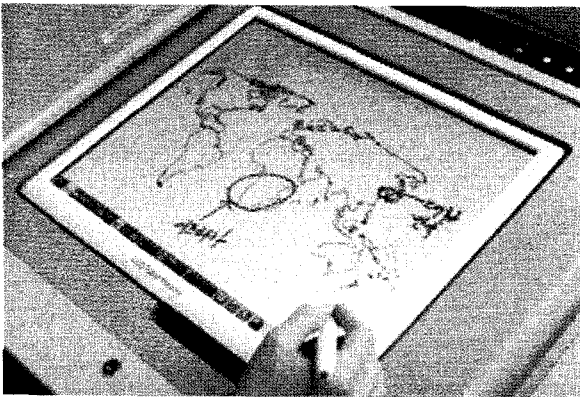
유명한 경제학자 앨빈토플러는 제3물결 사회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이론, 이데올로기, 여러 방면의 혁신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게 되었으며, 컴퓨터는 이처럼 역사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원동력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 역사의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원동력인 컴퓨터의 마지막 새로운 혁명, 제3물결의 마지막 종착역을 향한 무한 질주가 (주)아하정보통신에서 시작됐다.

* 믿음으로 뭉친 (주)아하정보통신

(주)아하정보통신은 Pen Input Device 전문회사로 '전자유도방식을 이용한 LCD Tablet Monitor'를 세계에서 3번째로 개발한 곳으로 세계 최고를 위해 도약하는 유망한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주)아하정보통신은 '제9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2008년 신기술실용화 및 인증제품 구매 촉진대회'에서 유공기업 부문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구기도 대표는 "우리는 일을 즐겼다. 즐기며 일했기에 이와 같은 성과가 나온 것 같다. 지금까지 가족처럼 불철주야 노력해 준 모든 직원들에게 고마움 따름이다."며, "이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힘든 줄 모르고 일에 매진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구 대표는 김포로 사옥을 이전하여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전세를 마련해 주는 등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구 대표에게 있어 이렇듯 직원들은 가족이나 다름없는 든든한 동반이었다.



* 새로움의 A-HA!, 놀라움의 A-HA!



▲ 국내최초 신기술 인증 받은 LCD Tablet mon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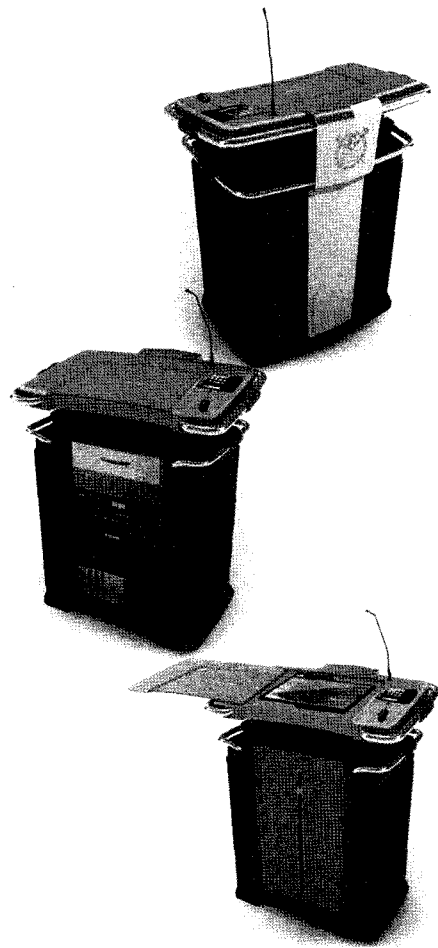
현재 Tablet 제품은 교육시장 뿐 아니라 의학과, 금융계 등 모든 분야에 두루 사용되고 있다. 교육 분야는 분진칠판이나 고가의 전자칠판 대신 교실에 컴퓨터와 프로젝터를 설치, 타블렛 모니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간편하고 쉽게 학생들에게 교과 내용의 시연은 물론, 단순히 준비된 자료를 보여주기만 하는 교육에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하는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국민은행에서 세계최초로 (주)아하정보통신의 Tablet 제품을 사용한 페이퍼레스뱅킹을 시작했다. 이 제품의 큰

장점은 여러 장에서 서명하는 문서의 번거로움을 해소, 전자문서에 직접 서명하여 경비 절감은 물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최대 장점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도 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정부가 보편화 되는 시점에 맞춰 이와 같은 결제시스템은 필수 요소가 될 것이다.

"현재는 큰 기업이나 Tablet 시스템이 꼭 필요한 분야에서만 사용되었으나 앞으로는 보편화되어 개인사

용자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고 전하는 구대표. 지금은 하루 50대 정도의 생산만 했기에 가격이 높아 개인 보급률이 낮았지만, 김포로 신사옥을 옮겨 공장의 확장과 더불어 하루에 만대 정도로 생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게되어 이로인해 그만큼 가격을 낮출 수가 있어 보급률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아하정보통신 제품이 다른 제품들과의 차별화 되는 점은 자신의 필체가 부드럽고 분명하게 나온다는 것이다. 기존의 Tablet 제품의 경우 자신의 필체가 살아 있지 않고 끊어지는 느낌이었는데, (주)아하정보통신 제품은 필체가 살아있으며, 힘을 주면 굵게, 힘을 빼면 얇게 나오는 정교함이 묻어나와 지금까지의 입력장치 중 가장 진보된 방식이다. “가격이 낮아짐으로써 개인 사용자가 많아지면 아마 현재 가격에서 5분의 1정도 낮춰질 것이다. 그 날을 위해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구대표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를 듣노라니 경제에 불어닥친 한파가 이곳은 무시한 듯한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만큼 (주)아하정보통신의 미래가 밝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 최첨단 전자교탁 시스템 'Maestro'

* 세계의 높은 벽을 넘어라!

세계 시장에서는 Tablet 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일본과 대만의 제품이 현재 1, 2위를 다투고 있지만, 아하는 세계 2위를 점령한다는게 목표이다. “올해 매출 목표액이 100억이었는데, 이미 300억을 달성했으며, 2010년 코스닥이 상장되면 1,000억 매출은 문제없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구대표의 확신속에서 현재 이들의 무서운 성장속도를 보면 이 꿈은 바로 내일이면 이뤄질 것 같았다. 이렇듯 실현 가능성에 있어 확신을 갖고 있는 구대표는 “이 사업은 단명하는 반짝 아이템이 아니라 굉장히 활용처가 많은 분야이다. 이 분야에 있어 확신을 갖기에 내 목표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통해 그의 남다른 사업 안목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주)아하정보통신은 현재 약 8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러시아, 일본, 두바이, 독일 등에서 진행된 전시회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으며, 아하의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회사를 찾아와 문의하는 등, 현재 구 대표는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들의 제품의 우수성을 보고 느낀 놀라움의 'A-HA'가 (주)아하 정보통신 안에서 연신 울리고 있다.

* 처음처럼, 언제나 처음처럼

1999년 법인 설립 당시, 구 대표는 굉장히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한다. “4년여의 개발 기간 동안 너무 힘들었다. 국내 여러 대학 교수들이나 연구소에서 이 기술을 성공시키려 했으나 번번히 실패하여 나 또한 사람들이 실패할 것이 분명하다며 주변에서 극구 만류했었다. 하지만 나는 성공했다.”며, 그 당시를 회상하는 구 대표. 쌓짓돈을 꺼내가며 어렵게 성공한 만큼 구 대표는 그때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사훈인 '처음처럼'이라는 문구를 보며 그가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보냈으며, 그 당시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겸손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니 그가 이끄는 기업의 인격적인 탄탄함 또한 엿볼 수 있었다. “기업인이기에 회사가 커지길 바라는 욕심이 크다. 그러나 욕심이 커진다고 해서 사람이 아량의 그릇을 포기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욕심이 커짐에 따라 넓은 마음도 생겨야 한다. 회사가 커지더라도 건방지지 말고, 항상 겸손해져야 한다고 내 자신을 다스린다.”는 구 대표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리더다운 면모를 찾을 수 있었다. 언제나 처음처럼, 그는 그렇게 세상을 향해 힘찬 도약의 날개 짓으로 유유히 날아가고 있다.

